



백남준 작 '퍼버유틸'

이중섭·박수근·김환기·백남준·나혜석...

정읍시립미술관 '대작 성찬'

'100년의 기다림-한국 근현대명화전' ... '정읍 방문의 해' 기념 4월 20일까지 무료



정읍시립미술관 전경.

'이중섭·박수근·김환기·백남준·나혜석·오지호·이인성·이용노...'

전시실에서 만나는 작가들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오는 4월 20일까지 열리는 '100년의 기다림-한국 근현대명화전' 전이다. '2019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시가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기획전으로 지난 1월24일 개막 후 지금까지 1만 5000여명이 다녀갔다.

가나문화재단 등에서 작품을 수집한 이번 전시는 조선이 서양미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00년 이후부터 100년의 시간을 망라한 기획으로 근대 여성 화가 나혜석부터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까지 49명 작가의 작품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20세기 근현대미술 작가와 작품을 세 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1전시실 '교과서 속 우리 미술: 격동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예술혼의 탄생'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등장할 만큼 역사상 가치가 확고한 걸작들을 모았다.

수차례 경매에서 국내 최고가를 기록한 신안 출신 김환기의 '산월'을 비롯해 한국적인 미감을 표현한 박수근, 한국 인상주의를 구축한 오지호, 비운의 화가 이중섭, 민중미술의 전설 오윤, 조선이 낳은 천재 화가로 불린 이인성 등 대가들의 작품이 즐비하다. 또 구본웅·도상봉·유영국·임지순·장욱진·권진규·이수억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2전시실은 '한국화를 넘어 한국화로-전통의 계승과 혁신'으로 꾸몄다. 전통 산수화부터 현대적 계승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고희 출신 전경자 작가를 비롯해, 이용노·김기창·박생광·김은호·변관식·이상범·장우상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표현의 모색-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주제로 열리는 3전시실은 광범위한 표현 기술과 다채로운 방법론을 구현한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코너다.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비롯해 전수천·곽인식·문신·윤명로·이대원·최영림·하인두 등의 작품이 전시됐다.

미술관측은 당초 유료 관람을 추진했으나 '방문의 해' 등을 기념하고 좀 더 많은 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중이다.

정읍시립미술관은 도서관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 해 지난 2015년 문을 열었다. 2층 규모의 아담한 미술관은 3개의 전시실과 카페를 갖추고 있으며 미술관 바로 뒤 나지막한 야산은 산책길로도 인기가 높다.

월요일 휴관(오전10시-오후 5시). 문의 063-539-6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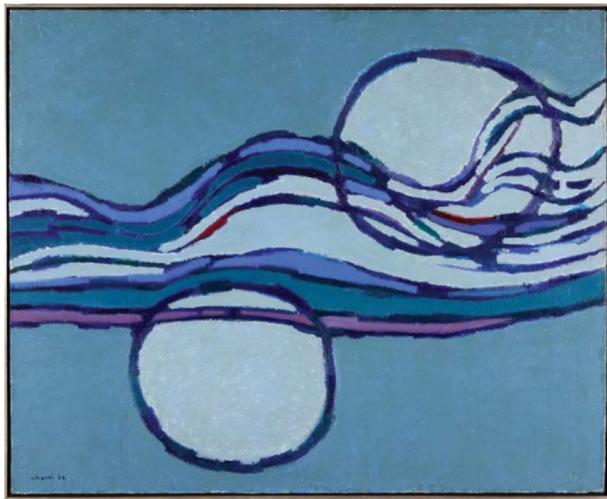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



이중섭 작 '시승과 두 어린이'



박수근 작 '소금장수'



김환기 작 '산월'

신인 피아니스트 5인의 무대

강재동·정윤정·양수희·조을화·임민경
광주피아노아카데미 21일 금호아트홀

'2019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신인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 피아노 아카데미는 지역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지난 1990년 창립했다. 회원 50여 명은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신인연주회, 세미나를 열고 있다.



강재동 임민경

이날 연주회에는 신인 피아니스트 5명이 기량을 펼친다. 먼저 전남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재동씨가 쇼팽의 '바카를레(베토벤 작품 60)'와 '폴로네이즈 작품53 영웅'으로 문을 연다. 정윤정(호남신학대 졸업)씨는 쇼팽 '발라드 4번 바단조 작품 52'를 양수희(광주대 졸업)씨는 스크리아빈 '피아노 소나타 2번 올림 사단조 '환상적 소나타' 작품 19'를 연주한다. 조을화(목포대 졸업)씨는 '피아노 소나타 2번 작품 35'를 무대에 올리고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임민경(전남대 졸업)씨는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를 선보인다.

오는 5월21일에는 53번째 정기연주회 '스페인 피아노 음악'이 진행된다. 전석 초대. 문의 010-5877-405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청춘극장' 개봉박두

매주 수·목 무료...이달 '나, 다니엘 블레이크'

광주영상복합문화관(동구 서석동)이 오는 12월26일까지 '2019 청춘극장'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청춘극장은 2010년부터 이어져왔다.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매달 다른 영화가 상영된다. 올해 상영작은 거장의 작품부터 최신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로 마련됐다.

이달에는 이주민·노동자 등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묵직하게 그린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가 상영된다. 인간미를 잘 드러내면서 사회의 부조리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낸 이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4월에는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파헤친 '그날, 바다' (2018-김지영), 5월에는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꾸뻏씨의 행복여행' (2014-피터 젤섬)이 관객을 만난다.

이외 '오페 생각' (이한 감독·6월), '헬부르의 우산' (자크 드미·7월), '부산행' (연상호·8월), '미드나잇 인 파리' (우디 앨런·9월), '5일의 마중' (장 예모·10월), '나의 마지막 수트' (파블로 솔라르스·11월), '대호' (박훈정·12월)가 상영된다. 문의 062-350-9340. /백희준 기자 bhj@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근접합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2019 Dinner Show
박상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콜케입 증명)